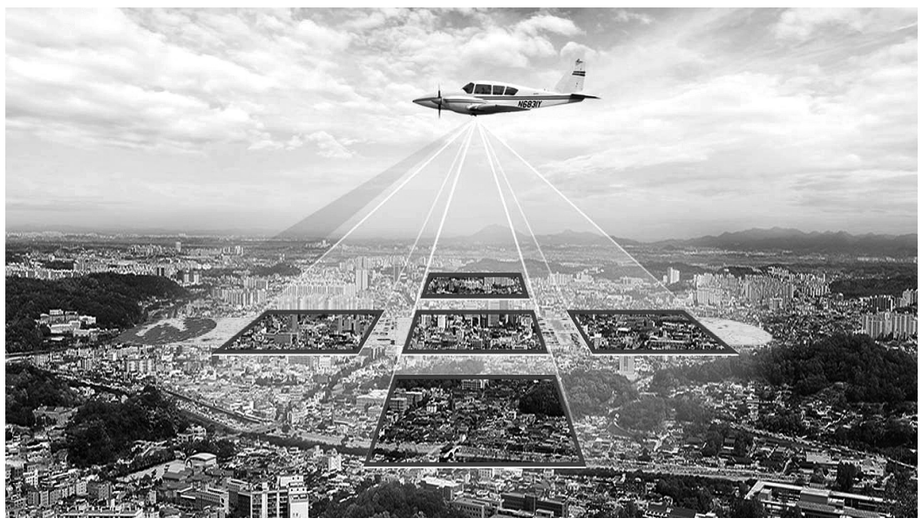
정읍시, 고정밀 전자지도 만든다

29억 투입 디지털트윈 기술 도입
항공 촬영·3차원 공간정보 등 구축
정책 수립·도시 계획 등 활용
첨단 도시관리 체계 구축 목표


정읍시의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개념도.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본격화 한다.

정읍시는 시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도시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입해 첨단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의 대상물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지역 95㎢에 대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한다.

기존 1대5000 축척 지도보다 5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또 도로, 건물, 하천 뿐만 아니라 맨홀,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횡단보도와 같은 세부적인 시설물까지 표시된다 .

국내에서 제작되는 수치지도 중 가장 정밀한 지도다. 공공·민간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항공촬영, 모바일 맵핑 시스템(MMS)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치지형도(1대1000), MMS 취득데이터, 항공사진(정사영상), 3차원 공간정보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 입안·계획 수립, 도시 계획·관리, 인허가 업무, 건설공사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기존의 지도를 훨씬 뛰어넘는 정밀하고 입체적인 3차원 정보를 제공한다"며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도시계획과 재난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국악의 성지 악성사
18일 '대한민국 국악대제'

지난해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국악대제' 모습. 〈남원시 제공〉

전통 국악선인을 기리는 '제18회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18일 남원 운봉 국악의성지 악성사에서 열린다.

(사)민속국악진흥회(대표 강대인)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악의성지에 위패가 봉안된 악성 옥보고 선생과 동편제 판소리 창시자인 가왕 송흥록 선생을 비롯한 국악의 선인을 기리는 행사다.

국악대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남원시립국악단의 주도로 점촉례, 점시례, 분향례, 강신례, 참신례, 초헌례, 축문낭독, 아헌례, 종헌례, 유식례, 숙사소경, 사신례, 음복례, 분축례, 기념공연, 묘역참배 등이 진행된다.

국악의성지는 민족의 전통과 혼이 담긴 성지임을 널리 알리고자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을 모아 조성된 곳이다.

2007년 개관해 악성 옥보고, 가왕 송흥록 등 5인의 선인묘역과 국악인 56인의 위패가 모셔졌으며 국악 관련 전시관과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철 불법 행위 단속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소장 한경동)는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11월10일까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한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 취사행위, 상행위, 흡연행위, 주차행위, 오물투기, 반려동물 출입 등이며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단속활동이 이어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국립공원 공원사무소 김영권 자원보전과장은 "금지행위를 미리 숙지해 안전하고 질서있는 탐방문화가 조성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예산 적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 목표율 88%…재해위험 정비·복지 사업 독려

남원시가 올 하반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는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율을 88%로 설정하고 예산 적기 집행과 불용예산 최소화를 목적으로 재정 집행 모니터링, 이월 예산 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략·체계적 집행 관리와 집행 독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집행 독려 분야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과 사회복지·출산·보육 분야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을 통해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으로 지속된 경제 침체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상반기 재정 집행률 64.49%로 전국 5위·전북 1위를 달성, 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략적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대행' 호평

복잡한 서류 준비·외국인사무소 방문 없어 농사일에 전념 '만족'

고창군이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등록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위해 운영중인 등록대행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기존에는 농가나 계절근로자 등이 복잡한 구비서류 등을 직접 준비해 전주 외국인사무소까지 다녀와야 했다.

군은 올해부터 농가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업해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농가들의 호응도 크다.

한 농가는 "매번 외국인 등록을 할 때마다 전주까지 가야 했고 보완할 사항도 많았는데 고창군의 등록대행서비스로 시간도 절약되고 바쁜 농번기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또 고창군은 농가 경영 안정화와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사업으로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성실근로자 항공료, 외국인 관리센터를 통한 통역 지원, 무료 건강검진, 사랑의 옷 나눔행사, 관내 주요 관광지 견학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서 '어린이 명창' 도전하세요

11월 8일까지 참가자 모집

고창군이 올해의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을 가리는 제37회 전국 어린이판소리왕중왕대회 참가자를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왕중왕 대회는 판소리 여섯바탕 사설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고창군과 KBS 전주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회는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11월 9일 예선을 거쳐 10일 7명의 어린이가 본선 경연을 한다.

왕중왕전은 KBS 전주 방송총국이 전국에 방영해 어린 꿈나무들의 판소리 기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대회 참가는 2023~2024년 국악대회에서 입상한 전국의 어린이로 (사)동리문화사업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